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대한민국

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다자통상협력과 이민철 과장(2110-4493), 조선희 주무관(2110-4499)

G20 무역 및 투자조치에 관한 제9차 보고서 회람

- 보호무역조치 관련 모니터링-

□ WTO/OECD/UNCTAD 사무국은 6.17(월)(제네바 시각)「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9차 보고서」(대상기간 : 2012.10월-2013.5월 중순)를 회람함.

○ 동 보고서는 G20 정상간 "무역 및 투자제한조치 신설 금지 약속(Standstill)"에 대한 G20 회원국 각국의 이행 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발간중임.

□ 사무국의 분석에 의하면, 2013년도 세계무역 성장률 전망치는 3.3%로 2012년의 2% 보다는 높지만, 과거 지난 20년간의 장기 연평균 성장률인 5%에는 못미침.

(무역 및 무역관련조치)

□ 동 보고서에 따르면, 보호주의 동결 약속에도 불구하고 G20 국가들이 2012.10월 중순 이후 도입한 무역제한조치는 총 109건으로, 이는 회원국 상품수입의 0.5%, 세계 총수입의 0.4%에 해당

○ 지난 대상기간(2012.5월~10월 중순, 71건)에 비해 무역제한조치 건수 증가

○ 무역제한조치는 무역구제조치, 수입제한조치, 수출제한조치, 기타로 구분

- 대상기간동안 무역구제조치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(전체 무역제한조치 중 61% 차지) (표1 참조).

<표1> G20 회원국들의 무역제한조치 도입 추이

(단위: 건수)

구 분	1차 보고서 ('09.4-8월)	2차 보고서 ('09.9월 - '10.2월)	3차 보고서 ('10.3월 - 5월 중순)	4차 보고서 ('10.5월중순 - 10월 중순)	5차 보고서 ('10.10월중순 - '11.4월)	6차 보고서 ('11.5월 - 10월 중순)	7차 보고서 ('11.10월중순 - '12.5월 중순)	8차 보고서 ('12.5월중순 - 10월 중순)	9차 보고서 ('12.10월중순 - '13.5월 중순)
무역구제	50	52	24	33	53	44	66	46	67
수입	21	29	22	14	52	36	39	20	29
수출	9	7	5	4	11	19	11	4	7
기타	0	7	5	3	6	9	8	1	6
합계	**80**	**95**	**56**	**54**	**122**	**108**	**124**	**71**	**109**

○ 이번 대상기간 동안 각 회원국이 취한 무역구제조치는 • 반덤핑 • 상계관세 • 긴급수입제한으로 분류됨.

□ 2008년 이래 도입된 총 무역제한조치 중 19%만이 제거되었으며 이는 지난 대상기간의 21% 보다 낮은 수준임.

○ 전세계 상품수입량의 3.6%가 상기 무역제한 조치의 대상이 되었음.

○ 주요 국가별로는 브라질(40건)이 가장 많은 무역조치를 도입하였으며, 뒤이어 EU(24건), 아르헨티나(21건), 미국(11건) 순으로 나타남.

□ 한편, 우리나라는 총 4건의 무역조치를 도입함

○ 합판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, 수입관세 감축 내지 철폐, 중국,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필름 반덤핑조사 개시, 주류법 개정 등

(투자 관련 조치)

□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(FDI)는 전년 동기 대비 14-18% 감소하여, 약1.4조 USD에 달하며, 이는 2010년 글로벌 FDI에 상응하는 금액임.

□ 투자정책조치(investment policy measure)는 • 투자특정조치, • 국가

안보 관련 투자조치, ●국제투자협정으로 구분 가능한 바, 대상기간 동안 12개 회원국이 투자관련조치 도입

○ 투자특정조치 (9개국이 조치 도입)
- 우리나라 1건(외국환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비율 한도 축소 조치) 수록

○ 국가안보 관련 투자조치
- 해당조치 없음

○ 국제투자협정 (4건 체결)
- 우리나라 1건(한-콜럼비아 양자투자협정) 수록

□ 사무국은 G20 회원국들이 전반적으로 신규 투자제한조치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계속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.

(G20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)

□ 여전히 취약한 세계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, G20 국가들은 보호주의 정책을 통해 글로벌 경기를 악화시키기 보다는, 올해 말 WTO 각료회의에서 가시적 성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다자간 무역체계에 대한 동 회원국들의 확고한 의지를 시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조선희주무관(☎ 02-2110-449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